

4월 물가 14개월 만에 3%대... “물가둔화 흐름 빨라”

통계청 ‘2023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석유류 16.4% ↓ ... 35개월 만에 최대 하락
근원물가 4.6% ↑ 물가상승률 3.7% 웃돌아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7% 상승하며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에 3%대로 하락했다. 서비스 물가가 올랐지만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농축산물, 공업제품,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상승폭이 둔화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다.

지난해 기저효과 등을 고려해 향후 물가는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기·가스요금 인상 시기, 국제유가 인상, 환율 등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향후 불확실성이 상존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80(2020=100)으로 1년 전보다 3.7% 올랐다.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6.3%) 정점을 찍은 이후 8월(5.7%), 9월(5.6%), 10월(5.7%), 11월(5.0%), 12월(5.0%), 올해 1월(5.2%)까지 5%대 물가를 이어갔다.

이후 2월(4.8%)과 3월(4.2%)에 4%대로 상승 폭이 둔화하더니 지난달 3%대까지 내려갔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과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3.4%, 4.0% 상승했다. 상품 중 농축수산물 물가는 1.0% 상승에 그쳤다.

농축수산물 중 농산물 가격은 1.1% 상승했다. 이 중 채소류 물가가 7.1% 상승했다. 다만 전월보다는 7.5% 하락한 수준이다. 닭고기(51.7%), 고춧가루(6.4%), 파(16.0%), 풋고추(14.4%) 등은 올랐으나 쌀(-6.5%), 포도(-11.1%), 배(-21.7%), 배추(-10.3%) 등의 가격은 내려갔다.

축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1.1% 하락했다. 돼지고기(4.2%)와 닭고기(12.3%) 등은 올랐지만 국산 쇠고기(-6.7%), 수입 쇠고기(-6.6%), 달걀(-4.2%) 등이 내려간 영향이다. 수산물은 고등어(13.5%) 등이 오르면서

6.1%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1년 전보다 2.0% 올랐다. 빵(11.3%), 스낵 과자(11.1%) 등 가공식품은 7.9% 올랐지만 석유류 가격이 16.4% 내려갔다. 석유류 가격은 2020년 5월(18.7%) 하락한 이후 3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휘발유 -17.0%, 경유 -19.2%,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15.2% 등으로 모두 하락세를 보이면서다. 다만 전월과 비교하면 석유류 가격은 1.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료(22.5%), 도시가스(32.5%), 지역 난방비(30.9%) 등이 모두 오르면서 전기·가스·수도는 전월 동월 대비 23.7% 상승했다. 전월 상승폭(28.4%)보다는 둔화했다. 지난해 4월 전기·가스요금에 일부 상승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오름폭이 축소된 셈이다.

서비스 물가 중 공공서비스 물가는 1.0% 올랐다. 유치원 납입금(-6.2%)과 국제항공료(-4.9%) 등은 내렸지만 외래진료비(1.8%), 택시요금(6.9%) 등이 상승했다.

개인서비스 물가는 6.1% 올랐다. 햄버거(17.1%) 등 외식 물가가 7.6% 오른 데 이어 보험서비스료(17.6%), 공동주택관리비(5.3%) 등 외식 외 서비스 물가도 5.0% 오르면서다. 이는 2003년 11월(5.0%) 이후 19년 5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이다. 인건비, 재료비

상승이 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집세는 전세(0.9%)와 월세(0.7%)가 모두 오르면서 0.8% 상승했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3.7% 상승했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의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랐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4.6% 상승했다. 근원물가는 13개월 연속 4%대를 웃돌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보다 4.0% 올랐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물가 총지수 측면에서 하락폭이 커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농산물, 석유류, 식료품, 에너지 같은 계절적 요인과 일시적 충격에 의해 변동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 기준으로는 아직 하락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라고 분

석했다. 그는 “지난해 물가가 많이 올랐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하반기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기·가스요금 인상 시기와 국제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 추이, 환율 등 여러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4월 소비자물가동향과 관련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등에 따른 세계적 고물가 속에서 낮은 물가 정점을 기록했으며 상대적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국제에너지 가격 불확실성 등 향후 물가 불안 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정부는 경계감을 잃지 않고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관리하겠다”며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및 연장, 통신키 등 생계비 경감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물가 안정 기조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재한기자



스타벅스, 여름 신제품 출시

2일 오전 서울 중구 스타벅스 한국프레스센터점에서 열린 ‘망고 용과 레모네이드 스타벅스 리프레시’, ‘퍼플 드링크 워드 망고 용과 스타벅스 리프레시’ 등 스타벅스 신규 여름 시즌 음료와 푸드 출시 행사에서 모델들이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SPC 잠바주스, 트로피칼 하와이안 음료 3종

SPC가 운영하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잠바주스가 열대과일을 활용한 시즌 음료 3종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이국적인 하와이 휴양지’를 주제로, 리치를 포함해 파인애플, 망고, 코코넛, 패션후르츠 등 열대과일을 주원료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신제품 3종은 ▲망고&리치 베이스에 파인애플을 갈아 넣고, 상큼한 패션후르츠 토핑으로 새콤달콤한 맛을 극대화한 ‘패션 파인 리치 스무디’ ▲코코넛베이스를 넣은 망고스무디와 입안에서 툭툭 터지는 식감의 리치보바파

즙을 얇은 막으로 코팅한 것)의 조화가 일품인 ‘알로하 망고 코코넛 스무디’ ▲루비자몽을 착즙한 주스에 리치베이스, 탄산수를 섞어 청량감을 살린 ‘루비자몽 리치에이드’다.

잠바주스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해피오더 어플리케이션에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8일부터 21일까지 신제품을 해피오더로 픽업 주문 시 1500원의 가격 혜택이 적용된다. 또 22일부터 26일까지 신제품을 1만2000원 이상 픽업 주문 시 최대 6000원의 가격 혜택을 제공한다.

서선욱기자

아파트 전세, 2년 전보다 하락 62%...신축일수록 ‘역전세’ 우려 ↑

신축 아파트·수도권 대도시 전셋값 하락 폭 커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 계약 중 2년 전과 비교해 전셋값이 하락한 거래가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시장에 역전세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이나 주거 선호도가 높은 신축에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2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년 전과 비교해 전세 최고가격이 낮아진 하락 거래는 62%(1만9928건)로 조사됐다.

권역별로 하락 거래는 수도권 66%(1만9543

건 중 1만2846건), 지방 57%(1만2479건 중 7082건)으로 수도권의 비중이 높았다.

시도별로는 대구(87.0%), 세종(78.4%), 대전(70.8%), 인천(70.5%), 부산(69.6%), 울산(68.2%) 경기(66.0%), 서울(64.2%)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등 주택수요가 많은 대도시에서 전세 하락거래가 늘었다.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큰 폭으로 내렸고, 낮은 가격으로 신규계약 사례가 많았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아파트 연식별로는 신축 아파트일수록

역전세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전국 연식 구별별 아파트 전세 가격 변동률은 ▲5년 이내 -5.85% ▲6~10년 이내 -4.70% ▲10년 초과 -0.40% 순으로 신축의 전셋값 하락 폭이 컸다.

2년 전 대비 올해 전세 하락 거래 비중도 5년 이내 신축이 70.9%(4324건 중 3066건)으로 가장 높았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수요가 많은 대도시나 주거 선호도가 높은 신축에서도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어 거래 당사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국내 에너지 효율 1등급”...밀레 드림세탁기 ‘WCD 120’

독일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밀레는 국내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인 W1 세탁기 ‘WCD 120’ 드림세탁기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WCD 120은 지난해부터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드림세탁기다. 뛰어난 세탁 성능도 겸비했다. 유럽의 특허 받은 발집모양 구조의 허니컴드럼을 적용해 표면 위에 형성되는 얇은 수막이 부드러운 쿠션 역할을 하여 옷감 손상을 최소화한다.

스테인리스 스틸 저수조로 드럼 외에도 저수조까지 스테인리스 스틸로 돼 있어 옷감 마모를 줄여주고 고온 세탁 프로그램으로 진행 시에는 오염물이 제거된다.

밀레는 12가지 프로그램과 4가지의 세탁 리듬도 적용했다. 면이나 울, 실크 등 섬유 맞춤형으로 구성해 프로그램에 따라 적합한 세탁 리듬이 적용된다. 1400rpm의 월등한 탈수 속도를 보유해 탈수 후 세탁물의 잔존 수분량이 낮아 더욱 빠르게 건조된다.

유럽 특허받은 발집모양 허니컴드럼



사용 편의성과 내구성이 갖춰졌다. 다이렉트 센서로 숫자 표시와 센서 버튼으로 보다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최대 20년 사용 내구성

으로 이에 상응하는 세탁 프로그램은 5000회 이상의 테스트를 수행해 부품을 최대 15년간 제공한다.

최이슬기자

은행 위기 진정세에...비트코인 가격 4% ↓

이더리움 가격도 2.6% 하락세

미국 최대은행 JP모건체이스의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인수로 금융 위기가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1일(현지시간) 미 동부 기준 오후 8시55분께 전거래일 대비 4.1% 하락한 2만8081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 가격은 비슷한 시간

2.64% 내린 1834.66달러에 거래됐다. 이날 JP모건이 퍼스트리퍼블릭의 대부분 자산을 인수하기로 연방예금보통공사(FDIC)와 합의했다.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인수 발표 후 애널리스트들과의 통화에서 “(은행) 위기는 거의 끝났다”고 말했다.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은 지난 3월 초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에 이어

세번째 파산한 미국 은행이 됐다.

비트코인은 미국 은행권 위기가 고조되자 전통 은행 시스템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지난주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은행 문제가 불거지면서 반등했다. 하지만 높은 인플레이션, 연중 정책, 경기 침체 우려 등 영향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캘러시의 알렉스 손 연구 책임자는 “은행권 위기가 계속 비트코인에 호재가 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60% 넘는 하락폭을 기록했으나 올 들어 70% 넘게 뛰었다.

뉴스시스